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 8

특집/뉴미디어 세미나

미디어융합에 따른 방송환경변화



주제발표자

이상덕
통신개발연구원
/정보사회연구실장

1990년 3/4월호, 통권 제11호
표지는 Digital Video Graphics의
한 화면으로 1985년도 일본 잡지의
표지로 실렸던 작품

1990년 발행된 제 11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뉴미디어는 출현하고 있고, 기술의 융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송과기술’에서도 이미 26년 전에 ‘미디어 융합에 따른 방송환경변
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예측이 현재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생각
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아직도 그 당시의 예측이 유효한 것인지, 새
로운 예측이 필요한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올드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해 보
입니다.

-편집자주-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 등
다채로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시켜 주고 있다. 이
와 같은 기반 위에, 앞으로 방송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확실
히 진행되어 더욱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하는 멀티미디어시대가 도래할 것
이다.

본고의 목적은 기존방송을 둘러싼 두 가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의
방송환경을 전망하고자 한다.

서론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자유롭게 선택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사회는

서비스화, 정보화, 국제화, 도시화, 고령화 등의 변화 속에서 경제사회구조
및 국민의 생활의식과 가치관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보 수요를 유발시
키게 되는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상으로 다양하
고 전문화된 정보통신 서비스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방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움
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기존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 크
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미디어간의 융합 및 결합현상에 따른 대
응이고, 또 하나는 방송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품질화이다.

미디어간 융합현상

기존 미디어의 대표적인 것으로 전화와 방송을 들 수 있는데, 전화는 음성
에 의한 1대 1의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스미디어이다.

한편, 양미디어로는 최근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정보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능을 부가함
으로써,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뉴미디어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대부분의 뉴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인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에 의한 중간영역에서 출현되고 있다.

즉, 뉴미디어는 퍼스널미디어와 매스미디어가 각각 가지고 있는 주요특
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결합된 형태이다.

특히 80년대 이후의 전자기술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혁신은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융합현상은 동시
에 새로운 경쟁관계를 형성시킨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

원래 TV 등으로 대표되는 방송미디어와 전화로 대표되는 전기통신은 각
각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혁신은 이들 분야의 융합
을 촉진시켜,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을 형성시켰으며, 이러한
산업의 등장은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과 결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기술적
측면, 시장적 측면, 법제도 측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
어 간 융합 시, 이 세 가지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승효과를 촉발시키에 따라, 미디어간의
융합과 결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① 기술적 측면

정보의 전달수단을 크게 분류하면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선에 광섬유 케이블이, 무선에 있어서는 위성통신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기통신 네트워크는 ISDN을 지향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전송기술인 광통신, 위성,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은 방송과 전기통신의 기술적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각각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② 시장적 측면

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시장적 측면에는 크게 이용자 측면과 사업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고학력화 등을 배경으로 개인의 가치관은 양에서 질로 그리고 개성적이며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활양식도 다양화, 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 결과 이용자의 정보통신수요도 다양화, 고도화되어가고 있다.

한편,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정보는 무료라는 사회 통념에서 유료라는 인식으로 점차 변화되어 감에 따라, 신문,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 사업자가 주요 정보 공급원이었던 기존의 정보시장에 이른바 종합상사, 유통업, 운수업, 금융업 등 다양한 정보의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기존의 정보시장구조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정보시장의 구조변화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사업자가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시장의 성립을 가능케 한다. 부분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통신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이 새로운 서비스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또한, 이용자의 정보통신수요의 고도화는 사업자에게 정보처리기능과 영상기능을 융합시킨 다기능 미디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적 측면에서 융합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측면은 거리와 시간의 극복을 들 수 있다. 이용자의 정보통신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 문제의 해결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의 거리는 물리적 공간개념뿐 아니라 제도적, 심리적인 면을 포함한다. 보다 폭 넓은 개념이다.

한편, 시간개념에는 다이얼 즉시통화뿐만 아니라 희망에 따라 기대서비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중심으로 융합현상이 발생되게 된다.

③ 법제도 측면

급속한 기술혁신 및 시장구조의 변화는 법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정보통신산업은 국가주도적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시켰으며,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변화는 역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규제완화 및 경쟁원리의 도입은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서비스의 차별화, 신서비스의 개발, 신시장의 개척 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 개발을 위한 융합이 활발히 촉진되게 되었다.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구조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구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기술적 측면으로서, 정보처리, 전기통신, 방송 등 세 기술 분야의 융합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즉, 정보처리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전기통신망에 정보처리기능이 내포되고, 여기에 다시 방송기술이 융합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물리적 수단인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융합이다. 즉, 네트워크의 결합 형태로서, 교환기 경유를 통한 결합과 전송로, 단말기기, 센터의 공유를 통한 결합구조를 설명한 시스템 기능면에서의 융합이다. 셋째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융합구조이다. 현재 전기통신 사업자는 설비 등 하드분야의 책임자로서 통신내용인 소프트웨어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사업자는 이른바 하드와 소프트 일치원칙에 의해, 송신네트워크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차이를 인식하면서,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일본의 전기통신 정책 통합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전기통신과 방송은 모두 정보 또는 정보서비스라는 재(財)의 분배 또는 교환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① 재의 분배양식

② 재의 분배범위지정 / 재로의 접근자격요건

을 들 수 있다. 이것을 방송자 입장에서 보면, ①은 방송목적에 관련되어, 분배와 교환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②는 재의 분배 범위지정이다. 한편 ②를 수신자 입장에서 보면, 재에의 접근 자격요건으로, 이것은 자격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자격있음은 액세스가 폐쇄된 상황이며, 자격없음은 개방된 상태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의 융합은 대부분이 이미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지배하고 있는 전송로를 다른 목적을 위해 공용해서 상대방의 분야 또는 신규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경우이다.

우선,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본 융합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자기 소유인 유선방송망을 통신 교환망으로 공용하여 전기통신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무선방송사업자의 신규사업분야 진출로서, 분배망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CUG(Closed User Group) 영역이다. 이 경우에는 방송사업자가 설비와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는 유료방식과, 방송사업자는 설비만 제공하고 프로그램은 별도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의 방송분야 진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유인 전화회선이 통화에 이용되지 않는 빈 시간을 이용해서 음성정보 및 팩시밀리를 일제히 전송하는 일종의 동보통신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단,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회선에 의한 방송서비스라는 성격이 강하다. 둘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CATV망을 설치하여 CATV 사업자에게 망을 리스해 주거나 또는 이 망을 활용하여 직접 CATV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위성통신사업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트랜스폰다를 방송프로그램의 송신목적에 리스해 줄 경우이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융합은 동시에 경쟁을 유발시켜, 시장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송서비스의 다양화, 고품질화

현재, 미디어 융합현상과 함께 기존방송이 직면한 커다란 변화는 방송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품질화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라디오, TV로 대표되는 기존의 방송미디어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시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석에서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함께 TV의 난시청 지역 발생도 커다란 문제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미디어가 안고 있는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미디어로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송미디어의 다양화 및 고품질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형태나 내용의 서비스를 실현하여 방송서비스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FM 음성다중방송에 의한 자동차 등 이동체에 대한 서비스, FM 문자다중방송, 방송전파를 이용해서 문서, 도형 등을 전송하는 FAX 방송, 위성에서 TV 신호에 방해전파를 보내어 계약자만 볼 수 있는 유료방송, 위성 TV 방송의 여유부분을 활용한 데이터 방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의 방송환경

앞으로의 방송환경은 크게 멀티미디어화, 미디어믹스화, 그리고 차별화라는 세 가지 용어로 집약하여 설명된다.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등의 조치는 다채로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위에 앞으로 방송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착실히 진전되어 더욱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하는 멀티미디어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한편, 각각의 미디어의 다양한 특성을 살려서 상호간 결합을 통한 새로운 활용방법이 강구되는 미디어믹스 시대도 동시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미디어 간에 융합, 결합, 대체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미디어의 특색을 적절히 살린 차별화가 발생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방송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앞으로의 방송시스템으로서, 크게 세 가지 대체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지상방송중심 + 케이블/위성보완형, 지상방송 위성방송대항 병존형, 분배위성 + 케이블시스템 중심형이다.

둘째는, 앞으로의 각종채널 이용방식으로서, 크게 세 가지의 대체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1사 점용방식, 복수사 공용방식, 다수 소프트 사업자 공용방식이다.

셋째는, 앞으로는 방송분야의 네트워크 부문이 다양해질 것이다. 기존에는 크게 무선계(TV, 라디오) 네트워크 회사와 팩키지계(비디오 등) 배급회사가 네트워크 부문의 주류였으나, 앞으로는 TV 네트워크회사, 유료TV 공급회사, CATV 프로그램 배급회사, DBS 네트워크 회사, 팩키지계 배급회사 등으로 다양해지게 될 것이다.

넷째는, 미디어 간 융합현상으로 인하여 방송에 있어서는 설비와 프로그램 내용의 책임자 일치 원칙에서 분리 원칙으로 전환될 것이다.

다섯째는, 방송서비스의 고품질화·다양화로 인하여, 방송도 지금까지의 '소중 대량생산·평준화지향·수동형'에서 '다중 소량생산·개별성지향·능동형'으로 이행되어 갈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상덕, 뉴미디어의 개념정립과 융합화, 계간 통신정책동향, 통신개발연구원, 1990 봄 호출간
- 2) 위의 논문 참조
- 3) 위의 논문 참조
- 4) (사) 전기통신정책통합연구소, 전기통신방송 융합, 1989.3
- 5) 우정자전기통신 의합통신정책부회편, 4사회전기통신고도